

화순 산골마을 꽃송이버섯으로 부농꿈 활짝

<북면 노치리>

2011년 백아산 영농조합 설립, 전남도산림자원원 지원 재배

내달부터 전국 이마트 납품·수출 계약...올 매출 50억 기대

화순군 북면 노치리는 농사 지을 땅이 거의 없는 산골이다. 그렇다고 다른 마을처럼 과일 농사도 힘들었다. 기후가 맞지 않아 과일 당도가 떨어져 수확을 한다고 해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마을 일대 농민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연매출 50억원을 내다보는 건설한 영농조합을 만들어냈다.

화순의 백아산 꽃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대표 박성철)이 1kg에 100만원이 넘는 꽃송이버섯을 재배해 역대 부농 신화를 쓰고 있다. 이 영농조합은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그동안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꽃송이버섯을 안정적으로 키워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

특히 최근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계약을 체결,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이마트 매장 152곳에 납품하기로 했고 중국 업체와도 16만8000달러어치 수출 계약을 하는 등 판로를 더욱 늘리고 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항암·면역기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β-glucan)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꽃송이버섯 재배법을 개발했다. 꽃송이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영지나 상황버섯의 10배 이상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철 대표는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해 고민 끝에 선택한 품목이 꽃송이버섯이었다"면서 "최근 꽃송이버섯의 효능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구매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1년 5월 설립됐고, 앞서 지난 201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 사업 계획공모에서 '친환경 꽃송이버섯 육성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처음 이 조합은 8명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남들이 재배하지 않는 꽃송이버섯의 가능성에 반해 사람들이 몰려들어 지금은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꽃송이버섯을 건조해 유통도 쉽고 소비자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판매량도 늘고 있다.

또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한 토법을 활용한 병재배 기술은 꽃송이버섯 대량생산에 큰 도움을 줬다.



박 대표는 "꽃송이버섯은 굉장히 민감해 손으로 균을 배양하는 과정이나 병을 자르거나 균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염된다"면서 "병 재배법이 대량생산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꽃송이버섯은 지난 2011년 이후 국내에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재배가 시도됐지만 대부분 실패하거나 소량 생산에 그쳤다. 백아산 꽃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은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대량 생

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에만 안주할 수 없어 갈 길도 바쁘다. 현재 이 법인의 올 매출 목표액은 50억 원이다. 단순히 꽃송이버섯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 화장품, 이유식, 의약품으로 만드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또 꽃송이버섯을 통한 농촌 활성화도 이 법인의 큰 소망이다.

박 대표는 "우리의 성공적인 재배기술을 다른 농민에게 전수하기 위해 전국에 배양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재배농가가 많아지면 꽃송이버섯 농업주식회사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꽃송이버섯의 재배뿐 아니라 이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과 주말농장 운영 등 지역의 문화관광과 연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백아산꽃송이버섯영농조합이 최근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계약을 체결,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이마트 매장 152곳에 꽃송이버섯을 납품하기로 했고 중국 업체와도 16만8000달러어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꽃송이버섯이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우정(왼쪽 두번째) 고창군수와 김준성(세번째) 영광군수가 지난 28일 영광군청에서 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성·영광·고창군 공동발전 손 잡았다

3개군 군수 만나 하천 정비·도로망 개선 등 논의

장성군과 영광군, 고창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지난 28일 김준성 영광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를 차례로 만나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정비와 도로망 개선을 위해 국비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영광군과 고창군은 매년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피해를 주는 칠암천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장성군과 고창군은 고창과 백양사 IC를 연결하는 국지도 15호선에 대

해 터널공사를 시행, 교통 환경이 개선되도록 협력을 다짐했다.

국지도 15호선의 터널공사가 완료되면 구불구불한 산악지형의 위험한 도로에서 탈피해 안전한 차량 운행은 물론 양 지역주민간 상호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과 인접한 영광, 장성과 협력해 3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현안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문화회관, 오인표·최선희 바이올린-피아노 협연

대담미술관, '재활용서 업사이클 찾기' 초청 강연

오늘 담양군 '문화가 있는 날'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담양에서 바이올린 독주회와 문화관련 초청강연회가 개최된다.

저녁 7시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바이올린 독주회(포스터)는 '로망'을 주제로 바이올리니스트 오인표와 피아니스트 최선희가 협연해 클래식 향연을 펼친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인표는 국내외에서 오케스트라 협연과 정기 연주회 초청공연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담미술관은 같은 날 저녁 7시 '재활용품을 통한 숨어있는 업사이클 찾기-생각이 예술이다'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마련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평소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번 공연을 통해 클래식을 쉽고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군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마지막 주 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특색 있는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이날은 많은 사람이 부담없이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대나무박물관과 한국가사문학관, 소재원 등지의 입장료가 50% 할인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10년 노력 성과물...버섯 재배는 위기의 농촌 살릴 대안"

꽃송이버섯 재배법 성공 이끈 전남산림자원원 오득실 박사

"버섯 재배는 농가 소득도 늘리고, 도시민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국내 농촌의 미래입니다."

백아산 꽃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이 꽃송이버섯 재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는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녹지연구사인 오득실(44) 박사의 공이 컸다. 오 박사는 강원도와 지리산 일대를 누비며 재배 가능한 버섯을 연구하고 있다. 오 박사는 일본 등지에서 꽃송이버섯의 효능이 입증

되면서 인기를 끌자 국내 꽃송이버섯을 찾아다녔고, 재배법 연구에 성공해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키워냈다.

또 '꽃송이버섯 자생지의 입지조건과 재배특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전남대학교에서 균이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꽃송이버섯 재배법을 찾기 위해 오 박사는 10여 년을 몰두했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약리효과를 연구하

고 봉지 재배법을 개발한 것이다.

또 지난 10여년 동안 버섯연구에 심취해 표고버섯을 시작으로 꽃송이버섯, 잣버섯, 개암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참바늘버섯, 소나무잔나비버섯 등 전남도내 곳곳에서 자생하는 각종 버섯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오 박사의 손을 거처간 버섯 종류만도 100가지나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25건의 버섯 관련 지적소유권을 확보했고, 11개 기술은 14개 업체에 이전했다. 국제학회 논문게재도 13편에 달한다. 또 독자적인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산림청 R & D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돼 8억 5000여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확보, 향후 4년 동안 산학연 연구를 통해 식·약용가치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산업화해나갈 계획이다.

오 박사는 "버섯을 활용해 맛이 좋고 알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음료와 차를 개발하고 있고, 보습과 주름 개선 및 미백효과가 있는 화장품 시제품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NAVER *전남산림자원원* 단비플라워 *을 재배*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워케이션과 어울린 명소에
-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금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